

2013. 3.

2013년도 군의회 국외연수보고서

- 연수기간 : 2013. 3. 19. ~ 3. 25. 【6박 7일】
- 연 수 국 : 필리핀
- 연수인원 : 13명(의원 7, 직원 6)



임실군의회

목 차

I. 연수개요	1
II. 연수국가 현황	3
III. 기관·시설 방문·견학	4
○ (주) 세인투게더 방문	4
○ 파사이 시청 방문	4
○ 국제 미작연구소 방문	5
○ 한국결혼 이주여성 가족과의 만남	6
○ 사탕수수 농장 견학	7
○ 문화유적지 견학(리잘공원, 산티아고 요새)	7
○ 문화탐방(따알화산, 푸닝온천, 팍상한 폭포)	8
IV. 연수소감	10

2013년도 국외연수보고서

I. 연수개요

□ 목 적

-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국제적 마인드 함양과 지역개발을 위한 외국의 다양한 문화체험으로 우리군 실정에 맞는 발전방안을 강구하고자 함

□ 기 간 : 2013. 3. 19. ~ 3. 25. 【6박 7일】

□ 방문국 : 필리핀

- (주)세인트게더, 파사이 시청, 국제미작연구소, 사탕수수 농장, 한국결혼 이주여성 가족 만남, 산티아고 요새, 리잘공원 등

□ 참가인원 : 13명(의원 7, 직원 6)

구 분	직 위	성 명	비고	구 분	직 위	성 명	비고
임실군의의회	의 장	김명자		임실군의의회	사무과장	이남재	
	부의장	김상초			전문위원	홍효덕	
	의 원	문홍식			전문보좌	배경한	
	“	진남근			의사담당자	장윤미	
	“	신대용			“	김현철	
	“	문영두			“	김학석	
	“	김한기					

□ 주요 연수내용

- 글로벌시대에 부응하는 국제적 마인드 함양으로 군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의정활동 능력 배양
- 해외 관광자원의 벤치마킹을 통한 우리군 관광사업과 접목
- 다문화가정 증가에 따른 결혼이주 여성들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한국생활 적응력 제고를 통한 상생발전방안 강구
- 한반도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환경 변화와 FTA 체결에 따른 농작물 재배작물 전환을 위한 자료 수집
- 타국의 문화유산 탐방을 통한 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강구

□ 세부연수일정

일 자	시 간	연 수 대 상
3. 19.(화) (1일차)	08:30 11:30 14:30 16:00	- 임실군의회→인천 공항 - 인천공항→마닐라 공항 - 마닐라 도착 - (주)세인트게더 회사 방문
3. 20.(수) (2일차)	09:00	- 파사이 시청 방문 - 문화 유적지 견학(따가이따가이 화산지대)
3. 21.(목) (3일차)	09:00	- 문화 유적지 견학(푸닝온천)
3. 22.(금) (4일차)	09:00	- 문화 유적지 견학(팍상한 폭포)
3. 23.(토) (5일차)	09:00	- 국제미작연구소 방문 - 사탕수수 농장 견학
3. 24.(일) (6일차)	09:00	- 문화탐방 및 유적지 견학 (산티아고 요새, 리잘공원, 성어거스틴성당) - 한국 결혼이주여성 살바시온 티올라겐 친정가족 및 친지와의 만남
3. 25.(월) (7일차)	14:30	- 마닐라 출발(19:30 인천공항 도착)

II. 연수국가 연왕

[필리핀]



서태평양에 있는 동남아시아의 섬나라로서 적도의 약간 북쪽, 아시아대륙 남동쪽의 서태평양에 산재하는 7000여개의 섬들로 구성된 필리핀은 크게 루손 섬, 비사야 제도, 민다나오 섬의 세 지역으로 나뉜다. 1565년부터 에스파냐가 정복하였고 1898년 독립을 선언하였으나 에스파냐-미국 전쟁으로 미국의 지배를 받게 되었으며, 1943년 일본 점령을 거쳐 1945년 미국군이 탈환한 후 독립하였다.

- 수 도 : 마닐라(Manila)
- 인 구 : 9,400만명 (세계 12번째)
- 면 적 : 30만km² (한반도의 1.3배)
- 기 후 : 고온다습의 열대성(연평균 기온 27℃, 연평균 습도 70%)
- 주요민족 : 말레이인(95.9%), 중국인(1.5%)
- 종 교 : 가톨릭(83%), 개신교(9%), 회교(5%)
- 주요언어 : 영어, 타갈로그어
- 주요도시 : 마닐라, 세부, 클락, 팔라완
- 주요산업 : 농업
- 주요자원 : 금·은·철광석·구리·납·크롬철광·니켈·망간·석회암 등
- 한국과의 관계

- 필리핀과 대한민국은 1949년 3월에 정식 외교관계를 맺었다. 한국 전쟁시 UN군의 일원으로 참전(1950년 9월)하였으며, 1954년 1월과 11월에 마닐라와 서울에 각각 공사관이 설치되었고, 1958년 2월에는 양국 공히 대사관으로 승격시켰다. 필리핀은 대한민국의 IAEA 이사국 피선(1987년 9월), WTO 서태평양 사무총장 피선(1988년 9월), 남북한의 동시 국제연합 가입(46차 국제연합 총회), 1996년도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진출 등을 적극적으로 지지, 협력한 우방국이다.

필리핀은 대한민국에 있어서 제17위의 수출국이자, 제28위의 수입국이며, 모두 9만 6천여명의 한민족들이 필리핀에 거주하고 있다.

III. 기관·시설 방문견학

□ (주)세인 투게더 방문

- 니트 의류전문 수출기업으로 현재 필리핀(제1공장, 제2공장), 인도네시아에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연간 3,000만불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업체이다.
- 우리가 방문한 제1공장은 2010년 8월 필리핀 Rosario, Cavite 경제특구지역에 설립된 회사로 전체 10개 라인의 생산 시스템과 800여명의 필리핀 숙련공들이 2,100평 규모의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있다.
- 특히, 월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고 등 세계 각국에 제품을 수출중으로 앞으로 세계적인 업체로 부상할 것이라는 젊은 한인대표의 당찬 자부심은 같은 한국인으로서 매우 자랑스러웠다.

□ 파사이 시청

- 파사이는 원래 메트로 마닐라를 구성하는 4개의 도시중 하나로써 총면적 488km², 인구수 39만명으로 20개구역, 7개의 구, 총201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 니노이 아퀴노 국제공항, 빌라몰 항공기지외 더불어 관광업과 엔터테인먼트가 주요사업인 전형적인 관광도시이자 상업도시이다.
- 파사이 시청 입구에서 방문기념 목걸이를 걸어주며 환영해 준 시청 직원과 청사복도에 한가득 진열된 옛날 작두펌프도 인상적이었지만, 관광지 개발 극대화, 사회기반시설과 공익사업의 개선, 주민복지시설 개선, 지방정부 서비스 향상의 목표를 두고 시정을 펼친다는 열정 가득한 파사이시 부시장의 모습을 보니 파사이의 밝은 미래가 보이는 듯했다.

□ 국제미작연구소 (IRRI)

- 필리핀의 마닐라에 위치한 국제미작연구소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국제농업연구소로 1960년에 설립되었으며,
- 한국을 포함한 40여개 국가 및 국제재단에서 국제농업연구단을 통해 운영하는 상하 16개 연구소중 하나로 벼에 관한 연구와 교육을 하는 기관이다.
- 국제농업연구소는 우리나라와는 1968년 상호 기술협력 추진에 합의하고, 1972년 연구소의 개발품종을 바탕으로 서울대 허문회 교수와 농촌진흥청에서 연구개발·육성 '통일벼'를 개발하여 국내보급으로 다수확 작황을 통해 산업한국의 밑거름이 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기도 하였다.
- 연구소 담당자의 설명과 함께 전시관에는 재배지 분류에 따른 축소 모형, 전세계 미작 현황판, 각종 농경 의복 및 기구, 농경 축제문화 장식품, 각종 종자를 모아둔 플라스틱 모종실린더와 쌀 관련 제품 등이 전시되어 있어 벼농사의 연혁과 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었다.

□ 다문화가정 친정가족과의 만남

- 다문화가정 증가에 따른 결혼이주 여성들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한국생활의 적응력을 높여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연수기간 중 방문하기로 한 다문화가정은 필리핀 북부 카마리네스 수르주 커리시에 있는 한 시골에서 우리나라로 시집 온 살바시온 티올라겐의 친정집이다. 당초 티올라겐씨의 친정집에 직접 방문하기로 하였으나, 티올라겐씨 가족이 마닐라에 있는 친척집을 방문할 계획이 있어 마닐라에서 만남을 가지기로 했다.
- 커리시에서 아침 8시에 출발하였다는 티올라겐씨 친정가족은 마닐라에 오후 7시에야 도착했다. 다소 피곤해 보이긴 했지만 먼 곳에서부터 방문해 주었다며 우리에게 연신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가족분들의 말속에 타국으로 시집보낸 딸의 걱정이 한껏 묻어나 있었다.

- 티올라겐씨는 정영상씨(임실군 지사면 원산리 거주)와 2002년도 결혼하여 3남매를 두고 다복한 가정을 꾸리며 살고 있으며, 남편 정영상씨는 원산마을 이장으로 매사에 솔선수범하는 모범이장으로 칭찬이 자자하다. 부부금슬이 좋다고 소문난 이들 부부의 항상 웃는 얼굴이 인상적이었다.
- 멀리 타향으로 시집온 많은 결혼 이주여성들의 안정적인 삶의 정착을 위해 그들을 이해하고 보듬어 줘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몫임을 새삼 다시 느끼며 기분좋은 만남을 마쳤다.



다문화가족친지와의 만남



다문화가족 기념품 전달

☐ 사탕수수 농장 견학

- 한반도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환경 변화로 새로운 재배작물에 대한 자료 수집이 필요했다. 동남아시아의 설탕 최대 수출국으로 전 국토의 절반 가까이 사탕수수 재배지인 필리핀,



사탕수수 재배농가

- 1년전 태국 연수시 사탕수수 줄기를 구해 우리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험재배 중에 있어 사탕수수의 재배방법과 작황상태 등을 알아보기 위해 바탕카스주에 있는 한 농장을 방문했다.
- 농장주의 설명으로는 사탕수수를 재배하는 데 그다지 큰 어려움이 없고, 병이 만연해 어렵게 하지도 않고 벌레가 한꺼번에 발생해 밭 전체를 못 쓰게 만드는 일도 없다고 한다. 사탕수수

위 끝부분을 묶어 벌레가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는 지혜도 엿볼 수 있었다.

- 사탕수수는 주스나 음료수처럼 사탕수수 즙을 판매하거나 림주 원료로 사용된다고 하는데 믹서나 녹즙기에 갈아서 찌꺼기를 걸러내고 음료로 즐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 농장주가 잘라준 사탕수수를 먹어보니 어릴 때 대를 잘라 쪽쪽 빨아먹던 수수대(단수수)의 추억의 단맛이 있어 기분이 좋았다.

□ 문화유적지 견학

◇ 리잘공원

- 필리핀 독립운동가인 호세 리잘이 처형된 장소로 마닐라 시내의 인트라무스 부근에 위치해 있으며,
- 조국을 위해 남긴 호세리잘의 '나의 마지막 인사'는 관광객들을 위해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있는데 그 글속에서 영웅의 애국정신을 공감할 수 있었다.
- 리잘공원은 대단히 정갈하고 짜임새 있게 정리가 아주 잘된 공원으로 그 안에서 즐거움과 여유를 느끼는 동시에 독립운동의 정신과 자긍심을 자연스레 가질 수 있는 그들의 자랑거리인 듯하다.

◇ 산티아고 요새

- 인트라무로스 북서쪽 리잘공원 인근에 있는 산티아고 요새는 스페인 군대의 본부였던 곳으로 필리핀 독립운동가인 호세 리잘(José Rizal)이 사형선고를 받고 수감되었던 곳이다.
- 파시그강(Pasig River) 하구가 내려다 보이는 전략적 요충지이며, 스페인시대에는 필리핀인들의 노동을 강요 당했던 곳, 일본군 점령기에는 필리핀인들의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 슬픈 역사를 간직한 장소이다.

- 사형선고를 받고 걸어 나간 그의 발자국과 식민시대의 수많은 필리핀인들의 목숨을 앗아간 수장 감옥을 보니 식민시대를 거친 한국인으로서 동병상련의 아픔을 느꼈다.

□ 문화유적지 견학

◇ 따가이따가이 화산지대

- 마닐라에서 남서쪽으로 약 64km쯤 떨어져 있으며, 해발700m의 고지에 위치한 따가이따이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활화산으로 유명하다.
- 수억년 전 화산폭발로 길이 25km, 폭 18km에 이르는 따알호수가 형성되었고, 1977년 다시 화산폭발이 일어나 화산 분화구안에 다시 작은 분화구가 생겨났다.
- 화산 분화구에 있는 칼데라 호수까지는 숙련된 마부들이 이끄는 조랑말을 타고 정상까지 가는데 아직 화산활동이 진행중으로 기포가 모락모락 올라 오는 것을 볼 수 있기도 했다.

◇ 푸닝 온천

- 필리핀 마닐라 북쪽 푸닝(Puning)에 있는 온천으로 1991년 피나투보 화산의 대폭발 이후 한국인이 개발하여 2005년 개장한 노천온천이다.
- 온천에 도착하기 위해 현지인이 운전하는 사륜구동 자동차(일명 '지프니')를 타고 30분가량 올라가는데, 이 과정에서 용암이 흘러내린 기암절벽 계곡의 절경과 광활한 온천수 별관을 감상할 수 있었다.
- 무더운 나라의 온천은 더욱 뜨겁게 느껴졌지만, 지프니 체험, 계곡의 절경, 온천의 미생물이 몸의 노폐물을 제거한다는 아이템이 관광객을 끌어 들이는 게 아닌가 싶다.

◇ **팍상한 폭포**

- 팍상한 폭포는 세계 7대 절경중의 하나이자, 필리핀의 가장 유명한 대표 관광지로 마그다피오 폭포(Magdapio Falls)라고도 한다.
- 선착장에서 팍상한 폭포까지는 원주민 인부 2명이 끄는 방카(작은 통나무배)를 이용하여 1시간 정도 가야 하는데, 사람의 순수한 힘만으로 강을 거슬러 폭포를 접근하는 방식이 매우 독특했으며, 비상한 협곡과 높이 91m의 팍상한 폭포는 가히 국내외 수많은 영화 촬영장소로 활용되기에 충분했다.
- 천연의 숲이 잘 보존된 속에서 현지 주민들은 자연 그대로의 전통방식의 삶을 고수하고 있어 개발의 논란이 되고 있는 우리 실정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 주고 있었다.

IV. **연주소감**

필리핀은 우리나라보다 약 3배이상의 벼 재배면적에 연간 2회이상 벼를 수확할 수 있다. 게다가 벼 연구의 메카로 명성을 날리고 있는 국제미작연구소가 필리핀에 있다. 그럼에도 필리핀은 세계최대의 쌀 수입국가로 전락했다. WTO 출범과 동시에 쌀시장을 개방하고 쌀 생산 인프라가 붕괴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필리핀 정부는 국제미작연구소를 기반으로 쌀 자급자족을 목표로 한 쌀 증산 연구개발 정책, 초다수성 품종 육성과 다수확 재배법 개발 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사이먼 쿠즈네츠 박사는 “농업농촌 발전없이 선진국으로 갈수 없다”고 하였다.

1980년대 초 쌀 수출국이라는 자부심으로 쌀 생산 관련 연구 및 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 소홀이 현재 최대 쌀 수입국으로 전락한 필리핀의 예를 삼아 우리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단결된 힘을 발휘해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농업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쌀 소비량 감소, 쌀 시장 개방에 따른 대처방안 마련 등 산적한 과제속에서 우리가 식량 자급율을 높이고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농업발전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당위성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이번 연수의 중점 과제라 할 수 있는 살바시온 티올라겐씨의 친정 가족친지와의 만남은 참으로 인상적이었다. 순박하고 다정한 가족친지분들의 모습에 친숙함마저 느낄 수 있었다.

현재 임실 관내에는 결혼이주 여성 230여명이 군민의 일원으로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문화적 차이 및 언어, 교육, 경제적 문제 등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한국생활 정착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다. 특히 날로 다문화 가정수가 늘어나고 이혼가정의 증가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가족갈등과 문화충돌을 예방할 수 있는 지속적인 교육훈련과 다양한 프로그램 등이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지역사회의 큰 관심속에 보다 적극적이고 의욕적인 지원정책을 연구개발함은 물론 행정기관과 더불어 의회 차원에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결혼이주여성을 보듬고 다문화가족들이 소외감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의정과 현장의정을 펼쳐 나가야 겠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열대성 기후변화는 농업환경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으며, 새로운 재배작물의 도입은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일이 되었다.

언제나 그렇듯 위기와 기회는 공존한다. 일상화 되어 버린 기후변화는 위기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재배작물의 도입의 시도는 새로운 기회의 문이 될 수 있다.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노력이 시급함을 느끼고 이번 시도하는 사탕수수 시험재배는 우리 농업의 경쟁력 확보와 더불어 농촌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데 의미가 있다.

열대성 기후로 변하고 있는 국내에서 적합한 품목인 듯 한데, 당도가

현지와 같을지, 많은 농가들이 노지재배로 대량생산을 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농가에서 대량생산을 통한 다양한 먹거리를 생산해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농가소득 증대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야겠다. 새로운 것을 시도함에 마음이 설렌다.

필리핀의 관광산업의 중심은 '자연'이다. 그들에게 자연은 개발의 대상이 아닌 활용의 대상이다. 비록 전반적인 정비는 미흡하지만 자연 그대로를 최대한 살려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자연환경과 전통문화를 접목시켜 상품화하고 이러한 상품들이 체험관광과 연계되어 좋은 가치를 창출하고 있었다.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개발은 더디지만 그들의 넉넉한 웃음과 여유속에서 그들만의 만족도는 매우 높다고 느꼈다.

오늘날까지 계승되어 온 전통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은 불가분의 관계로 현시대에 잠시 빌려쓰는 후세에 물려 줄 고유자산이다. 무분별한 개발을 하지 않는 필리핀의 정책에 비해 투자유치, 개발사업이 주요사업이 되고 있는 우리의 경우와는 사뭇 다르다.

임실군 관광상품의 창출에 있어 관광과 우리 지역의 전통을 접목시켜 오감을 통한 접근을 도입함은 물론 임실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보다 특색있고 깊은 인상을 심어줄 추억의 소재를 개발 특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방문자가 참여 가능하고 흥미유발이 가능한 아이디어 창출은 많은 사람들이 다시 찾아 오는 성과창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거대한 국토와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 풍부한 문화유적, 빼어난 산수, 9400만명이라는 인구를 가진 나라, 6박 7일동안 필리핀을 알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의 실정과는 많이 다른 이색적인 면을 많이 보고 느끼고 배울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다.

현재 필리핀은 유럽재정위기와 중국 경기둔화 등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도 전년도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인 10개 국가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비록 지금은 경제적으로 낙후된 나라이지만 국민의 90%이상이 영어를 사용하고 뛰어난 손기술과 온순한 국민성, 풍부한 자원, 그리고 또 하나의 관광상품인 그들의 밝고 여유있는 미소는 현재 급부상하고 있는 필리핀의 커다란 자본인 듯 하다.

우수한 지도자, 최고의 여건, 완벽한 정책이 있다 하더라도 군민의 의지와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되었으며, 우리 의회 또한 군정이 추진하고 있는 계획에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생산성 있고 실용성있는 발전방향으로 경주해 나가는데 앞장서야 함은 물론,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것을 지켜 나갈 수 있는 성숙한 풍토를 이루어 낸다면 이보다 더 값진 것은 없을 것이다.

아울러 우리에게 주어진 목표는 명확하지만, 이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회, 행정, 군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혼연일체되어 공동체적 소임을 만들어 가는 노력속에서 그 해법을 찾는다면 행복임실은 곧 우리에게 성큼 다가오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끝으로, 이번 연수에 도움을 주신 살바시온 티올라겐 내외분과 필리핀 현지 가족 및 친지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연수가 단순한 견학이 아닌 글로벌시대에 부응하는 국제적 마인드 함양으로 임실군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의와 정성이 담긴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해 본다.